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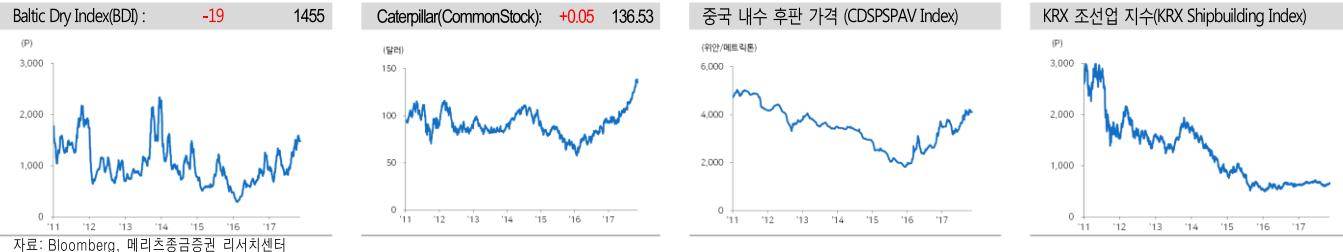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443.1	21.0	149,000	-5.4	-2.0	-11.6	7.6	53.6	121.3	0.8	0.8	1.3	0.6
현대로보티스	6,368.1	20.2	391,000	-3.7	-11.1	-18.1	N/A	4.3	4.9	0.8	0.7	19.4	15.8
현대알렉트릭	889.8	6.3	222,500	0.0	-8.2	-23.5	N/A	10.9	7.4	1.0	0.9	9.5	13.1
현대건설/기계	1,382.4	11.0	344,500	0.3	-9.7	-2.0	N/A	10.7	82	14	12	13.1	15.8
삼성중공업	4,777.5	19.3	12,250	-2.8	3.8	124	32.4	62.1	132.5	0.8	0.8	1.2	0.6
대우조선해양	2,011.3	3.6	19,150	-3.0	N/A	N/A	-57.3	1.2	10.8	0.5	0.5	63.6	4.9
현대미포조선	1,920.0	13.9	96,000	-8.6	-0.8	-7.7	42.9	9.4	32.5	0.8	0.8	8.9	2.4
한진중공업	394.5	4.1	3,720	-4.4	-5.6	-12.3	10.5	-11.6	84	0.4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372.0	31.3	55,700	0.2	7.9	8.6	-3.0	10.3	98	1.5	1.4	15.9	14.6
두산밥캣	3,538.8	24.4	35,300	-1.5	-4.6	-5.4	-1.5	15.5	142	1.0	0.9	6.6	6.7
현대로템	1,661.8	28.2	19,550	-1.5	12.7	5.1	7.7	37.1	250	1.2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74.4	47.5	27,500	0.4	30.3	19.3	30.3	14.4	127	12	1.1	8.5	9.0
성광밴드	288.9	15.1	10,100	-1.5	11.0	6.0	14.0	32.6	188	0.6	0.6	1.9	3.2
태광	273.0	16.7	10,300	-0.5	10.5	9.1	24.2	38.5	21.3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873.7	8.4	17,600	-1.1	-5.6	-5.6	-35.3	-80.2	11.1	0.6	0.6	-0.5	5.2
두산인프라코어	1,948.4	12.1	9,390	-4.2	2.1	10.7	6.5	9.8	83	0.9	0.8	9.6	10.4
두산엔진	306.5	5.0	4,410	-4.3	14.8	124	34.2	31.5	312	0.6	0.6	1.8	1.8
한국항공우주산업	4,922.5	19.5	50,500	-4.5	5.9	30.7	-24.6	45.0	205	3.3	3.0	7.3	14.9
한화테크윈	1,967.2	20.9	37,400	-3.0	12.8	-3.9	-13.9	28.5	185	0.8	0.8	2.9	4.4
LIG넥스원	1,245.2	15.7	56,600	-5.4	-25.4	-30.0	-29.7	19.1	133	1.8	1.7	10.0	13.2
태웅	374.1	1.8	18,700	-1.1	16.1	-9.9	-16.7	48.3	165	N/A	N/A	1.2	3.5
동성화인텍	138.4	3.6	5,130	-1.2	4.5	-13.5	-10.8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63.8	16.7	6,000	-0.3	1.9	0.2	-0.8	20.1	27.1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Daewoo 'still in EPC chase'

Upstream의 보도에 따르면, 터키 프로젝트의 위험성으로 EPC 시장에서 점차 철수한다고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위험에 관리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입찰에 나설 전망임. 또 대우는 18년말~19년초에 Chevron의 Rosebank FPSO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embcorp과 경쟁이 예상됨. (Upstream)

## Wessels to convert more boxships to LNG

Wessels Reederei는 1,036TEU급 Feeder 컨테이너선 3척을 Dual-Fuel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MAN Diesel & Turbo 사와 LOI(투자의향서)를 체결함. 전환의 주된 이유는 23척의 선박 발주에서, 첫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쌓아 추가로 발주될 후속 프로젝트에서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함으로 알려짐. (TradeWinds)

## 친환경 연료 고민 빠진 선사들..."너무 비싼데..."

2020년부터 강화되는 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사들이 1) 저유황유 사용 2) 스크러버 설치 3) LNG추진선 신조 등 대안을 고민 중임. LNG추진선은 척당 건조비용이 최소 2천만달러 이상 증가하며, 스크러버는 500~600만달러 추가비용이 소요됨. 선사들마다 경제성을 따져가며 환경규제에 대응할 전망임. (EBN)

## Pacific Drilling in Chapter 11 filing

시추업체 Pacific Drilling은 30억달러의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뉴욕 남부 파산법 원에 Chapter 11을 신청했다고 알려짐. 회사는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신청했고, 향후 구조조정을 위한 유예를 얻었다고 언급함. 작년 12월 이후 주가는 86% 하락하며 NYSE에서 상장폐지됐고, 최근 경쟁사의 인수후보로 고려됨. (Upstream)

## 미쓰비시, 일 3개 조선사와 합병 수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조선 사업부문 구조개편안과 향후 일본 3개 조선사들과 제휴관계 확장을 발표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오시마, 나무라, 이마바리 조선사와의 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함. 구조개편안은 미쓰비시 산하에 자회사 2곳을 신설하고, 3개 조선사가 주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함. (선박뉴스)

## Hapag-Lloyd도 잠재적 인수 대상?

Drewry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선사간 합병은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합병이 늘 것으로 전망됨. 향후 인수 대상으로 매력 있는 선사로 Hapag-Lloyd, Evergreen, PIL, Wan Hai Lines, STIC 등을 언급함. 또 컨테이너 시장에 메가 컨테이너선 추가발주가 장기 전망을 어둡게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언급.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1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1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1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침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